



**3·1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 제95회 3·1절을 앞둔 26일 광주우체국 앞에서 광주지방보훈청 주관으로 열린 '태극기 달기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지하상가~ 문화전당 연결통로 뚫는다

광주시, 내달부터 공사...5·18 민주광장은 축소 조성

광주시가 시민의견을 받아들여 그동안 추진했던 '금남로 518m 민주평화광장' 조성 사업을 취소하고, 옛 전남도청 분수대 주변만 박석(薄石·바닥돌)을 깎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또 침체한 금남지하상가 활성화에 힘쓰기 위해 아시아문화전당과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뚫기로 했다. <개념도>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16억원을 들여 옛 전남도청 분수대 주변 8094㎡에 5·18민주광장을 조성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광장 내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지켜본 회화나무(고사 주변에 518m 규모로 소공원) 꾸며지고, 573㎡ 규모의 분수대도 만든다. 분수대 주변은 길이 95m, 폭 1m, 깊이 2~5cm의 실개천이 감아둘게 된다. 광장바닥에는 박석이 깔리고, 무등산(입석대·서석대)과 광주의 시조인 비둘기 등을 디자인으로 한 바닥

장식물이 박힌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관련 설계를 마무리했으며, 광장 부지 내 위치한 아시아문화마루 이전공사를 추진하는 등 지상 구조물 철거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애초 금남로 1~4가(6차로) 518m구간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잔디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시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잔디 관리가 어렵고, 차선책으로 제시된 박석 등산(입석대·서석대)과 광주의 시조인 비둘기 등을 디자인으로 한 바닥

면 수정했다. 시는 광장 조성계획이 취소된 금남로는 대대적인 도로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문화전당과 연계한 명품 도로로 재단장하기로 했다. 시는 또 금남지하상가 활성화를 목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아문단)과 1년여에 걸친 끈질긴 협상 끝에 설계변경을 통해 지하 연결통로(문화전당~지하상가)를 뚫기로 최종 합의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옛 상무관 방향 금남지하상가 마지막 부분과 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 지하 1층을 폭 4m, 길이 8m규모로 지하통로를 만들기로 했다. 연결통로 주변에 엘리베이터(1기)를 만들어 지상과 지하공간을 곧바로 오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공사에 산은 전력 국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제주 뱃길 과일 경쟁 毒 될라

선박편으로 제주도를 오가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남지역 각 시·군의 경쟁이 과열로 치달고 있다. 과일 양상을 보이면서 여객선사 유치에 손실보전을 약속하는 지자체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남권과 충청권 관광객 유인, 지역 이미지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냉정하게 특실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제주 항로는 2000년 이전까지는 목포·완도에 불과했지만 이후 고흥·장성·해남에 이어 강진까지 올 하반기부터 신규

전남 지자체 앞다퉀 개설 5개 노선 200만명 이상 선사 손실보전 제안까지 투자 대비 득실 따져볼때

항로 개설을 결정해 도내에서만 6곳의 지자체가 정규노선을 갖게 된다. 치열한 경쟁은 일단 전남~제주 노선의 수송객을 10년 사이 3.5배로 키워놓았다.

제주해상관리단이 집계한 자료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목포, 완도 등 2개 노선 밖에 없었던 지난 2002년 60만7693명에 불과했던 전남~제주 수송객은 지난 2008년 고흥·녹동~제주 항로가 추가되면서 114만772명으로 늘었다. 또 장흥·노력항~성산포항이 운항한 2011년에는 무려 193만5258명, 해남·우수영~제주항 항로가 생겨난 2013년에는 194만4355명 등으로 수송객의 분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인 '파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운임 인하, 소요시간 감소, 다양한 선택 가능 등 관광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만, 최근 과일 분위기 속에 제주 항로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정 해역의 오염, 선사 유치 과정에서의 손실보전에 따른 재정적 부담 가중, 너울에 의한 양식장 피해 등의 우려도 높기 때문이다. 또 '거쳐 가는 관광객'을 위해 무리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7월부터 제주 섬 산포항을 취항하고 있는 장흥군과 인접해 있는 강진군이 지난 2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마량항~제주항 신규 노선의 조건부 면허를 받으면서 우려했던 바가 높아지고 있다. 강진군이 부항로가 추가되면서 114만772명으로 늘었다. 또 장흥·노력항~성산포항이 운항한 2011년에는 무려 193만5258명, 해남·우수영~제주항 항로가 생겨난 2013년에는 194만4355명 등으로 수송객의 분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지만 자칫 열악한 재정의 강진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론도 크다. 군 관계자는 "소요시간과 운임, 안전성 등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다"며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상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제주 항로는 지난 1978년 목포를 시작으로, 완도(1979년), 고흥(2004년), 장흥(2010년), 해남(2013년) 순으로 취항하고 있다. 지난해 목포~제주는 71만3003명, 완도~제주는 53만1843명, 장흥~제주 39만8512명, 고흥~제주 19만747명, 해남~제주 11만250명 등의 여객수송실적을 올렸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수송객이 늘고 있지만, 언제 이 추세가 멈춰 하락세에 접어들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제주 관광객들이 지역에 들러 특산물 소비 등을 하는 경우도 협상중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군은 이미 5개 항로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선사에 어느 정도 수익 보장"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무등산 탐방객 지리산·설악산보다 많아

작년 국립공원 승격후 첫 집계 397만명 찾아...전국 세번째

지난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의 탐방객 수 첫 집계 결과 지리산, 설악산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승격 후 무등산을 찾은 외국인도 꾸준히 늘면서 첫 탐방객 집계에서도 국내 유명 국립공원을 제치고 3위를 기록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6일 "지난해 전국 21개 국립공원 탐방객 수가 전년보다 15%(600만명) 증가한 4700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탐방객 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도입공원이었던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400여만명이 집계에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립공원별로는 북한산이 715만명으로 8년 연속 탐방객 수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한려해상(670만

명), 무등산(397만명), 설악산(336만명), 경주(315만명), 지리산(280만명) 등 순이다. 탐방객이 가장 많은 달은 단풍철인 10월로 691만 명이 국립공원을 찾았다. 가장 적은 달은 2월로 180만명이 방문했다.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늘어 지난해 국립공원 내에서는 전년보다 5% 늘어난 269명(사망

21명 포함)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출입금지 위반, 취사, 흡연 등 불법행위 적발(과태료) 건수도 2012년 2346건에서 지난해에는 2827건으로 20% 증가했다. 출입금지 위반이 946건(34%)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쓰레기 발생량은 1347t으로 전년 1520t보다 11.4%가량 감소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 300 4 MATIC Avantgarde 출시  
062)226-0001  
Mercedes-Benz



##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서남권(남양주권 상암로 입구) : 02)2276-0577-9 강남권(강남고속터미널 옆) : 02)3477-5110 홍로2가점(강남역 옆) : 02)733-0220 송파점(선릉역 2번 출구) : 02)419-3388 경기 안성점(구,시인회관 옆) : 02)421-2288 부평점(부평역 옆) : 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 : 031)246-5110 의정부점(의정부역 옆) : 031)821-6655 안양점(안양역 옆) : 031)469-0110 평택점(평택역 옆) : 031)658-0611 용인점(용인역 옆) : 031)336-1090 오산점(국인은행 2층) : 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 : 032)329-4400 남양주점(평화호 옆) : 031)593-9800 부산 서면점(서면역 옆) : 051)818-8800 서면점(818-0016 남포동점(우영역 옆) : 051)266-7200 울산 울산점(공평점 옆) : 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옆) : 053)297-6000 안주점(중앙역 옆) : 053)745-9870 대구 동원점(동원역 옆) : 053)425-4440 상곡점(상곡역 옆) : 053)425-1511 남일동점(아라미점 옆) : 053)425-7575 경북 포항점(포항역 옆) : 054)244-5110 안동점(구,안동고교 옆) : 054)859-2248 광주 광주점(금남로 47역 사거리) :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 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 입구) : 061)752-8845 전북 전주점(전북역 옆) : 063)252-5728 군산점(구,서창점 옆) : 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 옆) : 063)838-5600 남원점(시정네거리) : 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옆) : 042)254-5110 대전점(충촌로 옆) :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옆) : 042)255-48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옆) : 041)553-2888 광주점(공주역사거리) : 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개포로 구,속리산 고속 입안점) : 043)222-1177-8 충주점(삼천로 옆) : 043)852-1414 강원 원주점(원주역 옆) : 033)647-0588 춘천점(평호광장 옆) : 033)253-5110 제주 제주점(영랑로 옆) : 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인증    ISO 9001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동체 CE마크인증    GMP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b>광주점</b> 문의전화 (062)225-5110	<b>광주점</b> 문의전화 (062)651-4477	<b>순천점</b> 문의전화 (061)752-8845
----------------------------------	----------------------------------	----------------------------------